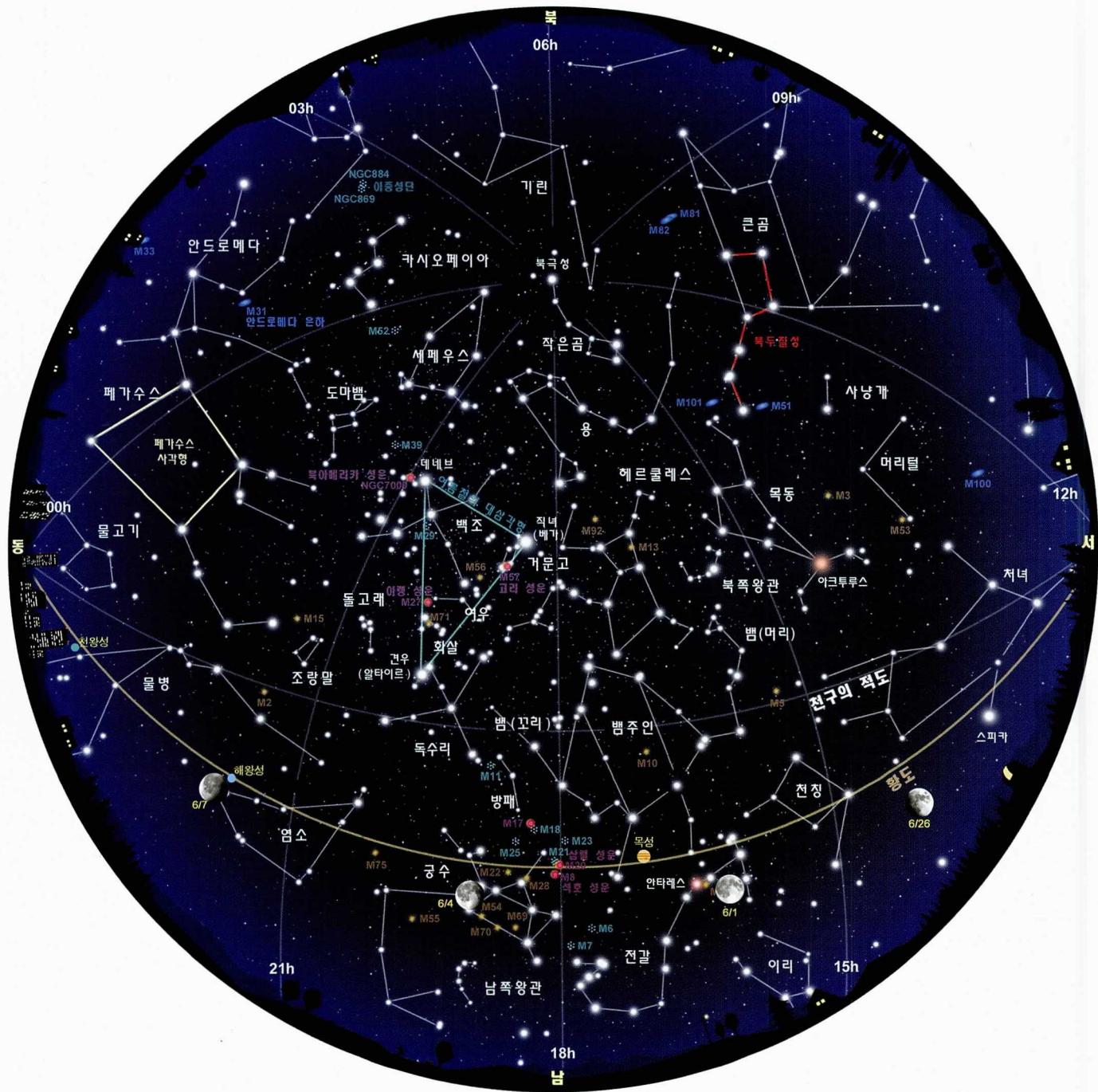


6월의 밤하늘



※ 성도 사용법

이 성도에는 6.5등급보다 밝은 별과 주요 성운, 성단, 은하, 달, 행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보통의 지도와 달리 성도에서는 동쪽과 서쪽이 바뀌어 있다. 따라서 밤하늘의 별자리와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성도를 위로 들고 성도면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사용한다.

성도에서 보이는 밤하늘은 6월 1일 02시, 15일 01시, 30일 00시 기준이며, 행성의 위치는 6월 1일 0시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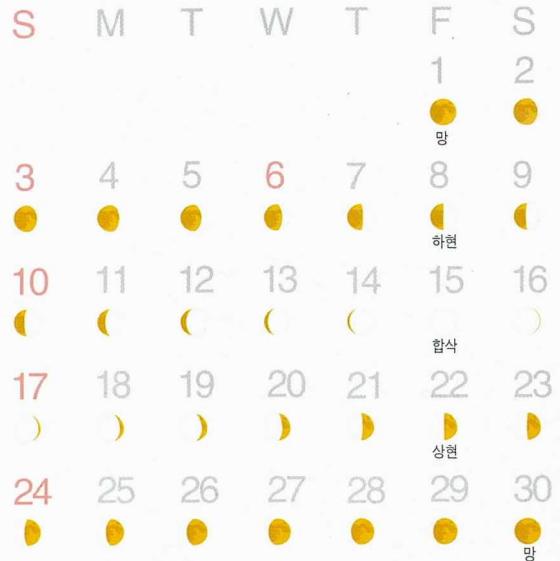
성도 범례

- 1등성 ⚡ 산개성단
- 2등성 ⚡ 구상성단
- 3등성 ⚡ 성운
- 4등성 ⚡ 은하
- 5등성 ⚡ 은하
- 6등성 ⚡ 은하

주요 천문 현상

6월

1일	10:04 망
2일	19:00 수성 동방최대이각(23°)
6일	08:00 목성 충 10:27 망종(태양 황경 75°)
8일	20:43 하현
9일	12:00 금성 동방최대이각(45°)
15일	12:13 합삭
16일	01:00 수성 유(동-서)
18일	21:00 달-금성 접근(2°)
19일	21:00 달-토성 접근(1.3°)
22일	03:06 하지(태양 황경 90°) 22:15 상현
24일	08:00 천왕성 유(동-서)
29일	04:00 수성 내합
30일	22:49 망



◎ 블루문 - 보름달이 두 번 뜨다



=사진은 인위적으로 파랗게 처리한 것이다.

다. 그런데 망이 그 달 1일인 경우 30일이나 31일에 또 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즉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뜨는 것이다. 이때 두 번째 망인 날 뜨는 보름달을 블루문(blue moon)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블루문은 정말 그 이름처럼 파랄까? 두 번째 뜨는 달이 파랗게 보일 어떤 과학적 근거는 없다. 왜 블루문이라고 부르는 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양에서 달은 풍요의 상징이고, 소원을 비는 대상이다. 반면, 서양에서 보름달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흡혈귀나 늑대 인간이 등장하는 영화에서 항상 보름달이 등장한다. 이처럼 두려운 대상인 보름달이 한 달에 두 번 뜨니 그 불길함은 더 했을 것이고, 이런 심적인 공포가 달을 푸르게 표현하도록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주장도 있다. 중세의 서양 사람들은 블루문을 불합리하거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숙어인 'once

in a blue moon'은 '아주 드물게', '좀처럼 ~하지 않다' 등의 뜻을 지닌다. 그런데 실제로 달이 푸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화산 폭발이나 산불 등으로 대기 중에 먼지 입자가 많으면 이 입자들이 달빛을 산란시켜 푸르게 보이는 것이다. 1883년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토아 화산 대폭발로 다량의 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나갔고, 이후 여러 날 동안 달이 파랗게 보였다고 한다.

블루문은 얼마나 자주 있는 것일까. 보름에서 다음 보름까지 1달이 29.53059일이므로, 100년간 1200월이 있고, 1236.83번의 보름달이 있게 된다. 따라서 대략 100년에 36.83번의 블루문이 있게 된다. 약 2.72년마다 1번의 블루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2월은 짧은 달이기 때문에 블루문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대략 19년에 1년은 두 번의 블루문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1년에 두 번의 블루문이 있는 해는 1950년부터 100년간에 1961, 1980, 1999, 2018, 2037년이다.



▶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양에서는 달 표면 무늬를 보고 방아를 치는 옥토끼나 다람쥐로 상상한 것에 반해(왼쪽), 서양에서는 늑대나 마귀 할멈을 상상했다.